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A Study on Regional Cultur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Humanities Resources of Seorak-dong, Sokcho, Gangwon Province

유춘동*

국문요약 속초 설악동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의 관광 개발 정책에 따라 조성된 대표적 관광지였으나, 관광 트렌드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쇠퇴한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설악동의 쇠퇴는 단순한 관광지의 노후화가 아니라, 한국 관광정책의 발전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자, 특정 세대의 집단 기억과 추억 감성이 응축된 장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설악동의 활성화를 단순한 물리적 재개발의 문제가 아닌, 인문학적 관점에서 장소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를 위해 설악동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인문자원의 관점에서 그 지역 정체성과 기억의 층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화코드로 주목받는 '레트로 감수성'을 이론적 틀로 삼아, 설악동의 낡은 건물과 생활사적 흔적, 단체 수학여행의 기억을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설악동의 재활성화는 첫째, 설악산 문화유산과의 연계, 둘째,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기획, 셋째, 숙박 및 상가 자원의 레트로적 재해석, 넷째, 안보 관광과 평화 서사의 접목, 다섯째, 속초 도심과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 여섯째, 지역민 참여와 생활사 기록의 자원화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설악동을 단순한 낙후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복합 문화 경관이자 지역 정체성의 기억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속초 설악동, 설악산, 관광 개발, 인문자원, 집단 기억, 추억 감성, 레트로, 문화경관

- 차례**
1. 서론
 2. 설악동의 역사와 현재의 발전 계획
 3. 설악동의 인문자원과 레트로적 재해석
 4. 설악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적 접근 방안
 5.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설악산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¹ 그중에서도 설악산의 관문 역할을 담당해온 설악동은 숙박, 음식, 문화 서비스가 집약된 관광 집적지(集積地)로 기능하며,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다.²

1 임채욱, 『설악산』, 다빈치, 2016, 23~24쪽.

2 조화현, 「지구단위 관광목적지 재생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 설악동 집단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광운대 박사학위논문, 2015.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관광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국내외 관광 트렌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설악동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현재 설악동에는 폐가로 방치된 숙박업소와 영업을 중단한 상업 건물이 다수 존재하며, 한때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 불리던 위상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 있다.³



(사진 1) 속초 설악동 입구의 안내판(사진 필자)

이러한 설악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⁴ 특히 중심적인 관심은 설악동의 재개발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관광 기반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설악동 재개발에 방해가 되었던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 논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숙박 및 상업 시설의 현대화, 관광 인프라 개선, 교통 및 편의 시설 확충 등 물리적 차원의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만으로는 설악동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관광은 단순한 소비 활동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과 정

체성의 공유 과정이다. 따라서 설악동의 활성화 전략은 경제적·물리적 개발의 차원을 넘어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성찰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설악산이 지닌 자연 경관의 미적 가치, 지역민들의 생활사와 기억, 그리고 한국 근현대 관광 문화사 속에서 설악동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개발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 ‘지속성’을 담보하는 설악동의 재생은, 공간 자체의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창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관광 트렌드 변화에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대의 관광객은 단순한 숙박과 소비를 넘어, 체험과 스토리, 역사와 문화가 결합된 통합적 경험을 추구한다. 따라서 설악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과 함께 인문학적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 설악산의 자연과 설악동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악동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설악산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뿐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설악동의 역사와 현재의 발전 계획

설악동의 본격적인 개발은 1970년대 초반 국가 주도의 대규모 관광정책 속에서 추진되었다.⁵ 1973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설악산 종합관광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1975년 4월 <설악동 종합 개발사업>이 착수되었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완성되면서, 설악동은 한국 관광 개발

5 강원도편,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강원도, 1981.

3 다양한 신문에서 설악동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설악산 관문이 90년대 유명마을로. 264억 들인 설악동 민낯』, 『네이트 뉴스』, 2025.8.18.

4 송훈석 의원실, 『설악권 관광,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송훈석의원실, 2010.



〈사진 2〉 설악동의 각 지구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원래 개발계획은 설악동 전체를 A에서 F까지 여섯 개 지구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종합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차 사업으로 A, B, C지구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D, E, F지구 개발은 중단된 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설악동 개발은 계획 단계에서 의도했던 전면적 완결성에 이르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실현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1차 개발이 마무리된 1980년대 이후 설악동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관광지로 성장하였다. 특히 전국의 수학여행단과 단체 관광객들이 설악동을 찾으면서 숙박시설과 상가시설이 빠르게 확충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설악동이 ‘국민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며 호황을 누리던 전성기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관광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모하였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소규모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고, 대규모 단체 관광 중심의 수요는 점차 축소되었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이후 콘도미니엄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숙박 수요가 분산되었고, 서·남해안권의 집중 개발, 금강산 관광 개방, 그리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전환과 같은 대규모 관광 정책의 변화는 설악동의 상대적 매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시대 변화에 뒤쳐진 관광 콘텐츠는 설악동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설악동의 상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특히 B, C지구의 숙박 및 상가시설은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건물의 방치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더불어 설악동과 소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설악동은 한때의 명성을 잃고 ‘낙후된 국제 관광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정적 차원의 대응이 시도되었다. 2008년 1월, 관광과 소속으로 ‘설악동 활성화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어 2011년 3월에는 정원 12명의 전담 인력을 갖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별도로 출범하였다. 이는 설악동 문제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적 관광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일련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악동 재개발의 핵심 전략은 기존 집단시설지구의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휴양·관광, 문화·예술, 생태체험, 상업·공공 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적 기능을 도입하는 데 있다. 기존 숙박과 상가 위주의 단일 기능을 보완하고, 지구별로 차별화된 매력을 부여하며, 전체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특히 관광 매력을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의 결합, 지역 브랜드화,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설악동 발전을 저해해온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요컨대 설악동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정책 속에서 형성된 대표적 관광지였으나, 시대적 변화와 외부적 경쟁, 그리고 제도적 제약 속에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최근의 재개발 노력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설악동이 지닌 역사적 맥락과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합기능의 도입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차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 설악동은 1970~80년대 한국인의 여행 경험, 단체 수학여행의 집단 기억, 당시의 숙박·상가 시설이 지닌 생활사적 흔적 등, 특정한 시대와 세대의 문화적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따라서 설악동을 재조명하는 일은 곧 인문학적 탐색을 통해 장소가 지닌 기억과 정체성을 되살리고, 이를 오늘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하는 작업이 된다.

특히 최근 대중문화와 관광산업에서 주목받는 레트로(retro)의 감수성은 설악동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레트로는 단순히 과거의 양식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공간의 정취와 경험을 현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설악동의 낡은 건물, 한때 성황을 이루던 상가의 흔적, 그리고 집단관광의 기억은 오늘날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과 문화경관의 재해석은, 설악동을 단순히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문화적 아카이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설악동의 역사는 단지 한국 관광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인문학적 성찰과 레트로적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이는 관광지 재생이 단순한 경제적 부흥을 넘어, 문화적 의미의 재구성과 지역 정체성의 회복을 동반해야 함을 보여주는 실천적·학문적 과제

이기도 하다.

3. 설악동의 인문자원과 레트로적 재해석

설악동 재개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D지구를 중심으로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합문화 공간, 문화 예술 교류지, 생태-웰빙 공간, 그리고 사계절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재편을 넘어, 각 지구가 지닌 고유한 인문·문화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지구의 경우, 2026년까지 쇼핑, 공연, 온천 족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 설악동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시설 내부에는 공유 오피스와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 함께 들어서, 현대 관광객의 새로운 수요인 워케이션(Work+Vacation)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울러 현재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천연 잔디 광장과 야외 무대 설치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A지구와 B·C지구를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통해서 설악동 전체를 하나의 문화 네트워크로 묶어내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B지구는 '문화예술인촌'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곳은 예술인들이 창작, 전시, 공연, 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지역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설악산을 찾는 등반객과 연계하여 국내 최초의 '산악등반 메카'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통해 설악산이 가진 고유성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설악산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다목적 광장, 공연장이 마련되며, 고품격 식당가와 연계된 '문화쇼핑센터'는 단순한 상

업 공간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맞닿은 새로운 체험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C지구는 과거의 노후한 상가와 숙박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문화와 웰빙을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숨다리 온천마을’은 지역 고유의 온천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와 휴양을 결합한 테마공간을 제공하고, 테마박물관·소규모 공방·갤러리·전시체험관은 관광객에게 학습과 체험을 결합한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가의 일제 정비를 통해 탄생할 ‘문화·웰빙 쇼핑센터’는 단순한 소비공간이 아니라 건강, 예술, 생활이 결합된 복합문화타운의 성격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생태공원, 다문화공원, 썸지공원 조성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공존하는 다문화적·생태적 경험을 제공하여 설악동을 포용적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 3) 설악동의 민박집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D지구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위락·휴양시설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비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의 복합시설과 성수기 활용을 전제로 한 대규모 휴양 시설은 설악동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스카이워크와 산책길은 단순한 관광 편의시설을 넘어, 설악산의 경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관광객의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

은 설악동이 단순한 숙박·상업 중심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 예술과 체험이 공존하는 종합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설악동의 재개발 사업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설악동의 재개발은 단순한 공간 확충이나 물리적 정비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악동이 지닌 역사문화사적인 의미이다.

설악동은 1970~80년대 한국 근대 관광의 형성과 대중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로 자리했다. 당시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던 설악동은 전국의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하는 대표적 수학여행지였으며, 이곳의 여관, 민박, 식당, 기념품점은 산업화 시기의 생활사와 소비문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설악동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의 근대적 이동 경험, 소비문화, 공동체적 여행의 기억이 중첩된 ‘문화기억의 장소’로서 기능해왔다.

오늘날 설악동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은 낙후된 관광지를 재정비하는 도시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와 감성이 남긴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설악동의 재개발은 인문학적 탐색을 통해 그 장소가 지닌 기억과 정체성을 복원하고, 이를 현재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기억의 재생’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레트로(retro) 감수성은 설악동 연구와 재개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⁶ 레트로는 단순히 과거의 형태나 양식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취와 감정을 현재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창출하는 전략적 해석 방식이다. 다시 말해 레트로는 ‘그리움의 미학’이자 ‘시간의 재활용’이다.

설악동의 낡은 간판, 오래된 여관, 관광버스 정류장, 단체 식당, 기념품점의 풍경 등은 한때 일상적이던 공간이지

6 사이먼 레이놀즈, 최성민 역, 『레트로 마니아』, 2014, 303~349쪽.

만, 오늘날에는 ‘세대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코드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잔존물과 세대적 기억을 결합하면, 설악동은 단순한 관광공간을 넘어 “과거-현재-미래가 교차하는 문화적 아카이브(cultural archive)”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지닌다. 즉,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기억 자원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먼저, 기억 자원화(memory heritage) 전략이 필요하다. 설악동의 오래된 숙박업소와 상가는 단순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산업화·도시화 시기 대중여행의 역사적 유산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철거가 아닌, 일부 건물을 보존·전시화하여 ‘수학여행 체험관’이나 ‘집단관광 아카이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옛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과거의 숙박문화를 재현하고, 당시의 사진, 표지판, 교복, 기념품 등을 전시한다면, 그 자체로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역사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폐허를 단순히 치워버리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의 층위를 쌓는 방식이다.

둘째, 레트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설악동의 ‘낡음’은 쇠퇴의 징표가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감성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수학여행 당시의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 추억의 분식 메뉴를 복원한 체험형 식당, 오래된 간판을 활용한 전시형 거리 디자인 등은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체험을 제공하면서도, 기성 세대에게는 향수를 자극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 체험을 넘어, 세대 간 기억을 공유하는 감성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설악동의 과거는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결합할 때 생명력을 회복하는 문화 자산이다.

셋째, 설악산의 자연경관과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결합한 복합 문화 관광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설악산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연자원이며, 설악동은 그 관문으로서 인문적, 사회적 기억을 담고 있다. 생태체험, 예술전시, 역사탐방을 결합한 복합형 관광 모델을 통

해, 설악동은 숙박과 소비 중심의 단기 방문지가 아니라 장기 체류형·교육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악의 기억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한 예술 레지던시, 문학 캠프, 생태예술축제 등이 열릴 수 있다. 이는 자연과 인문이 공진하는 ‘문화 생태계(cultural ecology)’ 구축으로 이어진다.

넷째, 지역민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이 결정적이다. 지역민의 기억과 생활사는 설악동의 진짜 역사이며, 이들이 개발의 주체로 나설 때 비로소 설악동은 지속 가능한 문화경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구술사 채록, 생활사 기록, 주민 주도의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설악동의 ‘기억 생산자’이자 ‘문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외부 자본이 주도하는 물리적 개발은 일시적 활력만을 낳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은 장소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예컨대, 주민이 운영하는 ‘설악동 기억상점’, ‘지역 아카이브 카페’ 등은 경제적·문화적 자립의 거점이자 공동체 정체성의 회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설악동의 재개발은 한국 관광정책의 변화와 한계를 드러내는 단순한 사례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문학적 성찰과 레트로적 감수성을 매개로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문화자원으로 변환시키는 창조적 실험의 장이다. 설악동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기억을 새로운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시 쓰는 재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설악동은 더 이상 낙후된 관광지가 아니라, 기억이 살아 숨 쉬는 문화 아카이브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복합적 문화경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현대 관광사 속에서 설악동이 지닌 상징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인문학적 사례가 될 것이다.

4. 설악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문학적 접근 방안

설악동의 발전 전략은 그동안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관광 산업 중심의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지 개발과 확장이다. 관광 산업 중심의 개발은 설악산 국립공원과 천불동, 오색리 등 주요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케이블카, 전망대, 레저 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이 도입되었고, 설악산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하여 고급 호텔,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의 건설도 추진되었다.

한편 주거지 개발과 확장은 설악동 일대가 지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기반하여 고급 빌라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와 강원도가 장기적 계획 속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려는 시도였으며, 강원도 전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개발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시설과 주거 공간의 확충만으로는 설악동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악동의 활성화는 단순한 개발 차원을 넘어, 장소가 지닌 역사와 기억, 그리고 지역 문화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곧 설악동이 지닌 집합기억과 문화경관을 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되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설악동은 설악산이라는 압도적인 자연 경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이다. 설악산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불교 사찰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와 한국 근현대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복합적 공간이다. 따라서 설악동의 재생 전략은 설악산을 단순한 관광 배경으로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재와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 문화재와 설악동 내 복합문화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관광객은 자연·문화·종교가 결합된 다층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다. 이는 설악동을 단순한 숙박·소비 공간에서 벗어나, 설악산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설악산을 배경으로 개최한 ‘설악산 책방’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설악산의 자연을 단순히 시각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과 토론, 문화 교류를 매개로 하여 장소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도였다. 이는 설악동의 재생 전략이 물리적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실천과 창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 소비를 유도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행사가 설악동의 복합문화공간이나 예술인촌과 결합된다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진 4〉 설악동의 대표 호텔, 설악파크호텔의 모습

또한 설악동은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낡은 여관과 상가 건물은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레트로 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체험형 숙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옛날식 객실과 간판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 시설을 결합한다면, 숙박 자체가 하나의 관광 경험이 될 수 있다. 동시에 현대적 수요에 맞는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가 공존한다면,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숙박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장소성(place)을 체험하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설악동 활성화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안보 관광이다. 설악산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은 분단과 냉전의 기억과도 연결된다. 설악산 지구 전적비는 그 대표적인 예로, 분단의 흔적과 전쟁의 기억을 보여준다. 과거 DMZ 관광이나 금강산 관광이 그러했듯, 설악동 역시 안보와 평화의 서사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안보 교육장'으로 기능하게 하기 보다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면, 설악동은 동북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는 일상적 관광과 비일상적 체험이 교차하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로서 설악동을 재위치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악동의 재생은 속초 시내와의 연계 없이는 온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속초 시내와 단절된 고립적 개발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속초 중앙시장의 먹거리 문화, 아바이 마을의 생활사, 속초항의 크루즈 관광, 어촌과 항구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설악동의 숙박·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속초 전역을 하나의 통합된 문화경관으로 발전시킨다면, 설악동은 속초 도시 문화의 일부로 재위치화(re-positioning)될 수 있으며, 지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요컨대 설악동의 활성화는 설악산 문화재 연계,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숙박 자원의 활용, 안보 관광 자원화, 속초 시내와의 연계라는 구체적 전략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들이

는 차원을 넘어, 설악동을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과 문화재현(cultural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한다. 그 결과 설악동은 단순히 낙후된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문화적 아카이브이자 지역 공동체의 복합문화경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와 과제

설악동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의 대규모 관광 개발 정책 속에서 형성된 대표적 관광지였으나, 관광 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제약, 그리고 사회·문화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악동은 단순한 관광 공간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례에 그치지 않고, 특정 시대의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과 국가 관광 정책의 궤적이 응축된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설악동 재생의 논의는 물리적 개발 차원을 넘어, 장소가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설악산 문화재와의 연계,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 기획, 레트로 감수성을 활용한 숙박 및 상업 시설의 재해석, 안보 관광과 평화 담론의 접목, 속초 시내와의 연계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생활사 기록의 자원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설악동을 단순한 관광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문화적 아카이브(cultural archive)이자 복합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동시에 몇 가지 과제를 남긴다. 첫째, 설악동 재생은 단기적 개발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 자원의 활용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둘째, 설악동의 기억과 장소성을 제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술사, 생활사, 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설악동 재생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 자본 주도의 개발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지방 정부, 민간이 협력하는 참여형 문화경관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넷째, 설악동은 국내 관광지라는 위상에 머무르지 않고, 분단과 평화의 서사를 활용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제적 담론과 연계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설악동을 단순한 지역 관광지가 아닌, 국제적 문화 교류와 평화 관광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악동의 활성화는 단순한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기억의 정치학(politics of memory)과 문화적 재현(cultural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 장소를 새롭게 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관광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설악동을 한국 현대 관광사의 사례 연구를 넘어,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결합된 지역 발전 모델로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설악문화제가 성대히 열렸고, 글로벌 화제 영화인 <속초에서의 겨울>이 개봉했다. 이런 노력은 분명 설악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릉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편, 「강원도 속초시 학술조사 보고서」, 『강릉어문학』 10, 강릉대 인문대학, 1995.
- 강원도편,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강원도, 1981.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편, 『설악산국립공원 공원자원조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21.
- 김경희, 「설악산 국립공원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오색케이블카 건설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휴먼서비스연구』 18(1), 국제사이버대, 2023.
- 김재영, 「1970년대 관광정책과 설악산에 대한 인식: 역사민속학적 관점에서 설악산 설악동 주민을 중심으로」, 『박물관지』 29, 강원대 중앙박물관, 2022.
- 사이먼 레이놀즈, 최성민역, 『레트로마니아』, 2014, 303~349쪽.
- 송훈석 의원실, 『설악권 관광,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송훈석의원실, 2010
- 조화현, 「지구단위 관광목적지 재생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광운대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A Study on Regional Cultural Revitalization Based on the Humanities Resources of Seorak-dong, Sokcho, Gangwon Province**

Yoo, Choon-Dong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cline and potential revitalization of Seorak-dong in Sokcho, a representative tourist district developed under South Korea's state-led tourism initiatives of the 1970s and 1980s. Once a symbol of national modernization and collective travel culture, Seorak-dong now embodies both the achievement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n tourism policy, as well as a site of generational memory and cultural nostalgia. Through a humanities-based analytical framework, the study reinterprets Seorak-dong as a locus of cultural identity and historical memory, employing the concept of "retro sensibility" to explore strategies for its cultural regeneration.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revitaliz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heritage linkage with Seoraksan, the retro reinterpretation of local facilities, the design of creative cultural programs, the integration of peace tourism narrative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Ultimately, Seorak-dong is redefined as a sustainable cultural landscape and a living archive where the temporal layers of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sect.

Keywords Seorak-dong, Seoraksan, Tourism Development, Humanities-based Approach, Collective Memory, Retro, Cultural Landscape
